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호 편집 후기

- 허완수 : “고분자 과학과 기술”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호의 편집위원회가 2005년 12월부터 구성되어 시작되면서 편집위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과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다섯 차례의 편집위원회를 열어서 목차작성, 원고를 작성할 기고자 선정, 30주년을 기념할 새로운 내용의 추가 등을 논의하면서 편집위원 모두의 사려 깊은 생각과 적극적인 노력과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구미와 대전에서 오시면서 불평 없이 회의에 참석해주신 조동환 교수님과 이성구 박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30주년 기념 특집호 편집위원회가 원만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김봉식 회장님과 김정안 전무이사님과 김재경 편집위원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난 30년간의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화순 실장님을 포함한 학회실무자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이성구 : “고분자 과학과 기술”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호의 특집데이터뱅크 중 산업현황과 연구소현황의 정리를 맡겨 주신 고분자 학회 전무이신 김정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욕심 같아서는 가장 최근의 정확한 정보를 고분자학회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싶었지만 정확한 자료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구해진 자료를 토대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산업현황과 연구소현황이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 조동환 :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호를 준비하면서 수 차례 구미-서울을 오가면서 어느 노래제목 “서른 즈음에”를 떠올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주어진 편집공간 내에 ‘우리 고분자학회 회원들에 대한 유용한 데이터뱅크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국내 각 대학의 대학별, 학과별 회원정보 그리고 국가지원 대형사업 주요 연구센터 및 그룹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새로우면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특집호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셨고, 정보 수집 과정에서 여러 회원이 신속하게 정보를 알려주신 것에 고마움을 함께 한다. 특히, 데이터 정리에 도움을 준 본인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에게도 감사한다. 30주년 특집호 준비과정을 통해서 소요된 시간보다도, 오랜 세월 지나온 고분자학회에 더욱 많은 정을 느끼고, 친근함이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됨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였다.
- 김재경 : 올 초 김정안 전무이사님께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호를 기술지 진에서 해결하라는 제안을 듣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 일은 현재 편집진에서 할 수 없으니까(30주년이라는 커다란 일이기 때문에) 특집을 위한 팀을 구성을 제안해서 허완수 박사님, 이성구 박사님, 조동환 박사님 세 분께서 주로 이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특집을 위한 일을 탁월하게 진행하셨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가운데 최종 교정을 해주신 기술지 편집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황진택 :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호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술지 및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허완수
승실대학교



이성구
한국화학연구원



조동환
금오공과대학교



김재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황진택
(주)이폴리머